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결과 보고 (요약)

I. 개요

1. 개최기간 : 2019. 9. 23(월)~25(수) * 예방 : 9.25 / 본회의 : 9.24(화)~25(수)
2. 개최장소 : 롯데호텔 서울
3. 참가자 : 한일 양국 경제인 등 309명
 - o 한국 측 : 김 윤(金 鈞) 한일경제협회 회장 등 203명
 - o 일본 측 : 사사키 미키오(佐々木幹夫) 일한경제협회 회장 등 106명
4. 회의주제 : '급변하는 세계경제 속의 한일협력'
 - o 제1세션 : 한일관계의 새로운 도약
 - o 제2세션 : 한일 공동과제의 실현

II. 개최 결과

1. 개최 성과

- ☐ 한일 간 여러 갈등으로 인해 양국 교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경제면에서도 예년과는 차원이 다른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중단없이 경제협력의 끈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음
 - o 한일경제협력 촉진을 위해, 한일경제인회의를 1969년 이래 한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 개최, 연 인원 11,222명에 이르는 네트워크를 구축
 - 4회 연기 : '91년 걸프전쟁, '11년 동일본대지진, '17년 한국 대선, '19년 한일 갈등
- ☐ 격동하는 세계경제 속에서 한일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보다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기로 합의'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함으로써, 출구가 보이지 않는 한일관계의 물꼬를 트는 회의가 되었음
 - o 제3국에서의 한일 협업, 고용문제·인재개발 등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공통과제의 해결, 경제·인재·문화교류 확대 등 5개 과제에 대해 협력 합의

<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 주요내용 >

- 양국 경제의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양국 정부의 대화 촉진에 의해 한일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기 위한 적절한 조치강구 요망
- 한일의 보다 밝은 미래와 발전을 위하여, 하기 과제에 관해 연계하여 추진
 - ▶ 제3국 한일 협업의 지속 추진
 - ▶ 한일 양국의 고용문제·인재개발 등 양국 공통과제 해결 협력
 - ▶ 한일 경제·인재·문화 교류의 지속·확대
 - ▶ 차세대 네트워크·지방교류 활성화 등 한일의 우호적 인프라의 재구축
 - ▶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성공개최 협력

□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연합뉴스, 니혼케이자이신문, 요미우리신문, 일간공업신문, KBS, NHK 등 국내외의 주요 언론매체 보도를 통해 한일 간 경제협력의 분위기를 환기시킴으로써,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

- 예년에는 볼 수 없었던 국내외 80여명에 이르는 취재진이 24일과 25일 이틀간 한일경제인회의를 집중 취재하여 보도
- 24~25일 이틀간 사진기사 포함 약 400건의 기사가 온/오프라인에서 보도됨

□ 회의에 앞서, 일본측 단장단(단장 :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일행은 한국측 단장(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의 안내로 산업부 예방을 통해, 한일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민간 경제계 활동에 대한 지지와 협조를 요망

- 제3국 공동진출·고용문제·청소년교류·문화교류 등에 대해 의견교환 하고, 앞으로도 양국 협회와 재단의 공동사업을 통해서 호혜적이고 윈윈하는 성과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3대 핵심인 경제·인재·문화 교류를 계속 추진하는 환경의 구축을 요망

3. 종합평가 및 향후 후속조치 계획

□ 종합평가

- 지난 5월 개최예정이었던 회의를 한차례 연기한 이후에 열린 대규모 경제인 회의로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양국 관계의 도약을 향한 새로운 50년의 한일 협력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졌다는데 큰 의의
- 수출 규제,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 한일협력에 대한 우려가 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300명을 넘어서는 양국 경제인들이 회의에 참가함으로써, 양국 경제계의 한일협력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느낄 수 있었음
- 309명에 이르는 양국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근 격동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일 양국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양국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

□ 향후 후속조치 계획

- (1) 회의결과 요약 보고서 제출 및 종합보고서 작성
- (2) 대정부 공동성명서 제출
- (3)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 논의 의제 선정('20. 5. 18~20, 도쿄 오쿠라호텔)

[참고]

1.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 1부
2.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 프로그램 1부
3.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 주요발표내용 1부.
4.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 한일 양국 주요 대표단 명단 1부.
5.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 주요 언론기사 모음

<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 주요내용 >

- 격동하는 국제정세 속에서도 한일의 보다 밝은 미래와 발전을 위하여,
서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
- 한일의 보다 밝은 미래와 발전을 위하여, 양국 경제인은 아래 5개 과제에
대해 상호협력해 나가기로 합의
 - △ 제3국 한일협업의 지속 추진,
 - △ 한일 양국의 고용문제·인재개발 등 양국 공통과제해결 협력,
 - △ 한일 경제·인재·문화교류의 지속·확대,
 - △ 차세대 네트워크·지방교류 활성화 등 한일의 우호적 인프라의 재구축,
 - △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성공개최 협력
- 특히, 양국 경제인은 공통의 사회적 과제에 입각하여, 양국 경제계가
협력하여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경없는 협업 확대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피하기로 합의
- 아울러, 양국 경제인은 한일의 호혜적인 경제 관계의 유지·발전을 위해서
는, 정치·외교 관계의 복원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공유
- 또한 양국 경제의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치·외교 관계가 양국
기업 협력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양국 정부의 대화 촉진에 의해 한일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기를 요망
- 다음 한일경제인회의는 2020년 일본에서 개최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

「격동하는 세계경제 속의 한일협력」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는 2019년 9월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대한민국 서울 특별시에서 개최되었으며, 한국 측에서는 김윤 단장 등 203명,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 단장 등 106명이 참가하였다.

작년 5월, 도쿄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기념비적인 제50회 한일경제인회의 이후, 국제정세는 크게 요동치고 있다. 유럽에서는 영국의 EU탈퇴(Brexit) 문제가 장기화하고 있고,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는 미중 통상마찰이 서플라이 체인의 연관성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또한 중동에서는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한층 고조되어, 한일의 에너지 자원 수입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또한 최근, 한일 양국의 정치·외교 관계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경제면에서도, 문화·스포츠교류 등의 분야에서도, 안타깝게도 한일관계는 긴장의 연속이다. 우리는 그동안 양국 민관의 선배들이 쌓아온 호혜적, 양호한 경제관계가 위기에 처해 있음을 깊이 우려한다.

우리 한일 양국 경제인은, 이러한 어려운 시기일수록, 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경제교류의 유대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확인했다. 양국을 잇는 가교로서, 양국 경제계는 미래지향의 원점으로 되돌아가, 잠재적 성장력과 보완관계를 극대화할 방안을 찾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고, 어제 24일과 오늘 25일 양일간, ‘급변하는 세계경제 속의 한일협력’을 주제로, 진지하게 미래지향의 양국 경제관계에 대해 토의했다. 공통의 사회적 과제에 입각하여, 양국 경제계가 협력하여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경없는 협업 확대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꾀하기 위해, 기탄없는 의견을 나누었다.

한편 아시아의 안정,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는, 중추가 되는 한일 양국의 정치

외교와 비즈니스 환경이 양호하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 경제계가 민간의 입장에서 경제·인재·문화 교류를 통해, 양국 경제계의 신뢰관계와 양 국민의 원활한 왕래가 조성되도록 활동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결의하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한일의 호혜적인 경제 관계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외교 관계의 복원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 경제의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치·외교관계가 양국 기업 협력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양국 정부의 대화 촉진에 의해 한일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기를 강력히 요망한다.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양국 경제인은, 한일의 보다 밝은 미래와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에 관해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다 음 -

1. 제3국에서의 한일 협업의 지속적 추진
2. 양국의 고용 문제, 인재개발 등에 관한 공통과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
3. 경제·인재·문화 교류의 지속·확대
4. 차세대 네트워크·지방교류 활성화 등, 한일의 우호적 인프라의 재구축
5.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을 향한 협력

그리고, 다음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는 2020년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2019년 9월 25일

한국측 대표단 단장 김 윤
일본측 대표단 단장 佐々木幹夫

〈참고 1〉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 프로그램

□ 일시·장소 : 2019. 9.24(화)~25(수), 서울 □ 주제 : **급변하는 세계경제속의 한일협력!**

■ 9.24(화)	
개회 및 개회사 14:30~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 윤 (사)한일경제협회 회장·(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이사장 ▶ 사사키 미키오(佐々木 幹夫) (일사)일한경제협회 회장·(일재)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이사장
내빈축사 15:00~15: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 安政) 주한일본대사
기조연설 15:20~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CJ그룹 회장 ▶ (日) 고가 노부유키(古賀 信行) 일한경제협회 부회장
16:00~16:20	Coffee Break
특별강연 16:20~16: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명한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前 외교통상부 장관 「북한의 개혁·개방과 한일협력」
보고·제언 16:40~17:05	<p>[한일신산업무역회의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석송 한국측 চে어맨·한국무역협회 부회장 ▶ 아소 유타카(麻生 泰) 일본측 চে어맨·일한경제협회 부회장 <p>[협회활동의 일반경과보고] ▶ (사)한일경제협회 서석송 상근부회장</p>
환영리셉션 18:00~19:30	<p>한일 공동주최 환영리셉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한일경제협회·일한경제협회 공동주최
■ 9.25(수)	
제1세션 09:00~11:30 (20분×4명발표) 70분 토론)	<p>□ 좌장 : 염재호 前 고려대학교 총장·SK(주) 이사회 의장</p> <p>□ 주제 : 한일관계의 새로운 도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 이우광 (주)농심 사외이사·前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일본연구팀장 「한·일 기업 제3국 협력 2.0」 ▶ (日) 무코야마 히데히코(向山 英彦) (주)일본종합연구소 수석주임연구원 「향후 변화되는 한일 경제관계와 서플라이 체인 ~ 한국 기업의 베트남 이전, 일본의 수출관리 강화 영향」 ▶ (韓) 장제국 동서대학교 총장 「한일관계 : 최근의 움직임과 금후의 과제」 ▶ (日) 모리야마 토모유키(森山 朋之) 한국미쓰이물산(주) 사장, SJC이사장 「한국에 있어서 일본기업의 활동상황 ~현장에서의 보고~」 <p>△ 질의응답/자유토론</p>
오찬회 11:45~13:10	공동성명(안)심의회 & 재단연락협의회, 단원 오찬회
제2세션 13:20~15:40 (15분×4명발표) 80분 토론)	<p>□ 좌장 : 고하리 스스무(小針 進) 시즈오카현립대학 교수</p> <p>□ 주제 : 한일 공통과제의 실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 이수훈 前주일한국대사·경남대학교 교수 「최근의 한일관계에 대해」 ▶ (日) 오쿠다 사토루(奥田 聡) 아세아대학 아시아연구소 교수 「한일 경제관계의 현상과 금후 ~공통과제의 대응~」 ▶ (韓) 서석송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전무이사 「The Way to go!」 ▶ (日) 전유미 Kelly Services, Ltd 대표이사 「제4차산업혁명시대, 인재동향 및 한일협력 인재육성」 <p>△ 질의응답/자유토론</p>
폐회식 16:00~16:20	공동성명 채택, 폐회인사 / 16:30~17:00 공동기자회견(양국 단장)

<참고 2>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 주요 발표내용

기관·기업명	제언 내용
(개회사)	
한일경제협회 김 윤 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 양국은 숙명적 이웃으로서,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세계시장에서 선의로 경쟁하면서, 최대한의 협력을 통하여 공존공영해야만 한다고 강조 - 기업의 본질은 투명한 경영을 통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 재정에 기여함으로써, 미래에 공헌하는 것이 사명
일한경제협회 사사키 미키오 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와 정치·외교가 자동차의 두 바퀴라는 것, 그리고 양국 간에 정치·외교 관계의 복원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 - 호혜적인 경제관계의 유지·발전방안으로, △한일 양국의 제3국 협업 △인재·문화교류 △차세대 네트워크·지역교류 활성화 △올림픽 성공 협력 등을 제언
(축사)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협력은 한일관계의 근간으로 미래지향적 협력방향을 제시 ①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역내에 확고하게 정착 ②4차 산업혁명에 공동대응, 신산업·에너지 분야로 협력을 확대 ③한일간 협력을 제3국과의 공동협력으로 확장
주한일본대사관 나가미네 야스마사 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 양국은 고용창출, 금융, 제3국 협력 등의 면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말할 필요 없이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이익을 준다며, 어려운 상황일수록 민간 차원에서 경제와 문화 교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
(기조강연)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한-일 협력에 대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밸류체인으로 세계경제발전, 서로의 강점 활용하여 동반 성장, 상호보완적 협력관계 속에서 평화와 번영, 신의회복 중요
일한경제협회 고가 노부유키 부회장	사회 과제의 해결을 향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안건을 추진하기 위해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지만 양국 재계가 한자리에 모여 교류를 하는 자리가 갖는 의미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데, 민간기업이 노력해서 과제 해결을 하고, 이를 비즈니스화할 수 있다면 양국 재계가 함께 만나 대화하는 것에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
(특별강연)	
김앤장법률사무소 유명환 고문(전 외교장관)	북한의 개혁·개방과 한일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혁·개방 가능성(선택이 아닌 필연), 시장기능의 확대, 유엔 경제 제재와 비핵화, 미북 정상회담, 한반도 안정과 일본의 역할 중요

(세션1 : 새로운 도약)	
(주)농심 이우광 사외이사	한·일 기업 제3국 협력 2.0 - 협력 우선지역 공동설정(ASEAN·베트남) 및 분야 다변화 제안 ①신사업(인프라·자원개발→스마트시티·스마트팩토리) ②인력육성(직업교육훈련) ③지속가능성 제고(환경오염 대처)
동서대학교 장제국 총장	한일관계 : 최근의 움직임과 금후의 과제 - 심각한 양국 여론, 뉴노멀 시대의 한일 간 시각차 속에서 새로운 한일관계 인프라 구축을 제안 ①우호적 여론형성 ②지역교류 활성화 ③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주)일본종합연구소 무코야마 히데히코 수석	향후 변화되는 한일 경제관계와 서플라이 체인 ~한국 기업의 베트남 이전, 일본의 수출관리 강화 영향~ - 제3국 현지생산 확대·국산화로 서플라이 체인에 변화, 베트남에서의 다면적 협력 및 한일 기업간 새로운 협력관계 모색 가능성
서울재팬클럽(SJC) 모리야마 토모유키 이사장	한국에 있어서 일본기업의 활동상황 ~현장에서의 보고~ - 재한일본기업의 문제점(한국경제 둔화, 산업구조 변화, 한일문제), 컨트리 리스크 중대 우려, 관계개선·정상화 요망, 비즈니스=계약 * Lose-Lose상황, 비즈니스 악영향→먹고싶은 것 먹고, 사고싶은 것 사고, 가고싶은 곳에 가는 그러한 상태로 되돌아가기를 기대
(세션2 : 공통과제 실현)	
경남대학교 이수훈 교수(전 주일대사)	최근의 한일관계와 과제 - 징용공, 위안부, GSOMIA 등 해법찾기 위해서는 투 트랙외교의 복원을 위한 공동의 노력과 대화지속이 중요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서석승 전무이사	The Way to go! - 잠재력 극대화·지속가능한 협력 위기, 미래세대를 위한 협력 제안 * 이사갈 수 없는 숙명, 선의의 경쟁과 협력으로 공존 ①모임(회의) ②협력(협업) ③매칭(상당)
아세아대학 오쿠다 사토루 교수	한일 경제관계의 현상과 금후 ~공통과제의 대응~ - 상호의존의 한일관계, 미래를 향한 공통과제 대응 제안 * 한일분쟁은 양국 모두 손실, 당면한 공통협력·지리적 과제에 대처 ①고령화 ②글로벌 인재 ③해외진출선 공급강화 ④여행편의 ⑤환경 ⑥에너지·재해 ⑦어업협정 등 협력
켈리서비스(유) 전유미 대표	제4차산업혁명시대, 인재동향 및 한일협력 인재육성 - 제4차산업혁명시대의 인재상(지능), 이공계 유학생·기업교환학생·인턴십·Job Fair→기업이 바라는 글로벌 인재육성 활용

〈참고 3〉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 한국측 주요 대표단 명단

(구분별, 성명 가나다 순)

구 분	성 명	회사·단체명 / 직위
團 長	金 鉦 KIM Yoon	(社)韓日經濟協會 會長 (財)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 理事長 (株)三養 HOLDINGS 會長
顧問 (基調演說)	孫 京 植 SOHN Kyung Shik	(社)韓日經濟協會 顧問 韓國經營者總協會 會長 CJ Group 會長
副 團 長	柳 津 Jin Roy Ryu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 豊山Group 會長
副 團 長	朴 在 弘 PARK Jae Hong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 代行 HANWHA CORPORATION 顧問
副 團 長	孫 鳳 洛 SOHN Bong Rak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 TCC STEEL 會長
副 團 長	尹 富 根 YOON Boo Keun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 三星電子(株) 副會長
副 團 長	李 輝 寧 Howard Lee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 世亞製鋼(株) 副會長
副 團 長	趙 鏞 炳 CHO Yong Byoung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 新韓金融持株會社 會長
副 團 長 (主題發表)	徐 錫 崇 SEO Seok Soong	(社)韓日經濟協會 常勤副會長 (財)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 專務理事
來 賓 (來賓人事)	兪 明 希 YOO Myung Hee	産業通商資源部 通商交渉本部長
來 賓 (特別講演)	柳 明 桓 YU Myung Hwan	前)外交通商部 長官 金·張法律事務所 顧問
特別參加 (主題發表)	李 洙 勳 LEE Su Hoon	前)駐日本國大韓民國 特命全權大使 慶南大學校 教授
特別參加 (經過報告)	吳 碩 松 OH Suk Song	韓日新産業貿易會議 Chairman (社)韓國貿易協會 副會長 METABIOMED Co.,Ltd 會長
特別參加 (1세션座長)	廉 載 鎬 YEOM Jae Ho	前)高麗大學校 總長 高麗大學校 教授·SK(株) 理事會 議長
特別參加 (主題發表)	李 佑 光 LEE Woo Kwang	前)三星經濟研究院 首席研究員 (株)農心 社外理事
特別參加 (主題發表)	張 濟 國 CHANG Je Kuk	東西大學校 總長

〈참고 4〉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 일본측 주요 대표단 명단

(경칭생략·순서없음, (일사)는 일반사단법인)

団 長	佐々木 幹 夫 SASAKI MIKIO	(一社)日韓經濟協會 會長 미쓰비시상사/ 三菱商事(株) 特別顧問
副 団 長	麻 生 泰 ASO YUTAKA	(一社)日韓經濟協會 副會長 아소시멘트/ 麻生시멘트(株) 代表取締役會長
副 団 長	上 田 勝 弘 UEDA KATSUHIRO	(一社)日韓經濟協會 副會長 오오가키정공/ 大垣精工(株) 代表取締役會長
副 団 長	岡 素 之 OKA MOTOYUKI	(一社)日韓經濟協會 副會長 스미토모상사/ 住友商事(株) 特別顧問
副 団 長 基調講演	古 賀 信 行 KOGA NOBUYUKI	(一社)日韓經濟協會 副會長 노무라홀딩스/ 野村홀딩스(株) 取締役會長
副 団 長	井 水 治 博 IMIZU HARUHIRO	(一社)日韓經濟協會 副會長 일간공업신문사/ (株)日刊工業新聞社 代表取締役社長
副 団 長	池 田 正 己 IKEDA MASAKI	(一社)日韓經濟協會 副會長 호텔오쿠라도쿄/ (株)호텔오쿠라東京 取締役相談役
副 団 長	十 倉 雅 和 TOKURA MASAKAZU	(一社)日韓經濟協會 諮問委員會副會長 스미토모 화학/ 住友化学(株) 代表取締役會長
副 団 長	村 上 晃 彦 MURAKAMI NOBUHIKO	(一社)日韓經濟協會 諮問委員會副會長 도요타자동차/ 도요타自動車(株) 執行役員
来 賓	長 嶺 安 政 NAGAMINE YASUMASA	在大韓民國日本國大使館 特命全權大使
特別參加 第1세션 發表者	向 山 英 彦 MUKOYAMA HIDEHIKO	(株)日本綜合研究所 上席主任研究員
団 員 第1세션 發表者	森 山 朋 之 MORIYAMA TOMOYUKI	서울재팬클럽 理事長 韓國三井物産(株) 代表理事社長
特別參加 第2세션 座長	小 針 進 KOHARI SUSUMU	静岡県立大学 教授
特別參加 第2세션 發表者	奥 田 聡 OKUDA SATORU	亜細亜大学 아시아研究所 教授
特別參加 第2세션 發表者	全 유미 JEON YOUME	켈리서비스(有) 代表理事

〈참고 5〉 주요 언론 기사 모음

東亞日報

2019년 09월 25일 (수)
02면 종합

한자리 모인 한일 재계 “갈등 장기화면 경제전반 악영향”

한일경제인회의- 양국 300여명 참석
“불매운동, 대기업에 그림자 드리워”
“재계가 해빙 분위기 조성” 뜻모아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는 불매운동은 일본 기업들의 경제 활동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상황이라 크게 우려된다.”(나가미네 아스마사 주한 일본대사)

한일 관계 악화로 한 차례 연기됐던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가 24일 개최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양국 관계가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한일 경제계가 먼저 ‘해빙’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양국을 대표하는 경제계 수장뿐만 아니라 정부 인사도 참석해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해 막대한 양국 관계에 모처럼 숨통이 트이는 게 아니냐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한일경제협회와 일한경제협회의 공동 주관으로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양국 재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한일 국교정상화 4년 뒤인 1968년에 처음 열린 뒤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지속돼 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한국 측 단장인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삼양식품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일 양국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세계 시장에서 선의로 경쟁하면서 최대한 협력해 공존 공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회사를 한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은 “두 나라 기업은 아세안(동남아 국가연합) 등 제3국에서 총 96건, 280억 달러에



손 맞잡은 한일 재계 2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철 전 외교통상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유영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나가미네 아스마사 주한 일본대사, 고가 노부유키 일한경제협회 부회장.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이르는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며 “양국이 제3국에서 협업하면 경제적 이익을 거둘 수 있을 뿐 아니라 제3국의 발전에 기여해 국제적 위상도 올라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 인사도 참석해 최근 악화된 양국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영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양국은 상호 분업하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성공적인 교류를 해왔다”며 “최근 부품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회의는 양국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간이 자발적으로 만들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한국 정부도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다. 나가미네 대사는 “민간 차원의 한일 관계 토대가 되는 경제와 문화 교류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양국 기업들 간의 협력에 줄어들다면 투자와 고용, 기업 수익성 감소뿐만 아니라 양국 경제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25일까지 진행된다. 25일에는 연재호 정 고려대 총장과 하리 스스무 일본 시즈오카현립대 교수가 각각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공식 행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양국 단장의 공동기자회견도 예정돼 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22.3 X 21.4 cm



이대근 기자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유영희 통상교섭본부장, 김윤한 일경경제협회 회장,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 고가노 부유키 일한경제협회 부회장.

총리도 장관도 불참한 韓日경제인회의

日 수출규제 등으로 갈등 고조
5월 개최하려다가 어제 개막
원론적인 수준 논의만 오가

“한·일 관계가 어려운 시기에 열리는 회의이니만큼 우리 경제인들의 사명감과 각오가 더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윤한·일경경제협회 회장)

“경제와 정치·외교는 자동차의 두 바퀴입니다. 정치·외교 관계 복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한국과 일본이 외교·무역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기업인이 공동 주최한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가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한·일경제인회의는 1969년 첫 회의를 개최한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개최돼 온 한·일 민간 합동 회의다. 지난 5월 열릴 계획이었지만 한·일 관계 악화로 연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날 행사는 200여명의 한국 기업인과 100여명의 일본 기업인이 참석했지만, 우리 정부 측 인사로는 유영희 통상교섭본부장

이 유일하게 참석했다. 지난해 도쿄에서 열린 50회 회의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석해 “한·일 관계가 어려울 때에도 경제인 교류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지속됐다”며 축하했다.

유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축사에서 “시장 개방과 자유로운 무역은 일본이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며 자유무역 혜택으로 성장한 한·일 양국이 그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에서는 한·일 주요 기업을 이끄는 경제인들의 모임이 사상 최악의 한·일 관계를 개선시킬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나왔지만, 실제로는 “한·일 양국은 감정의 용어리를 뛰어넘어 역내 질서에 관한 현실적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수준의 원론적 논의만 오갔다. 고가노부유키 일·한경제협회 부회장은 “이런 때 경제인들끼리 만나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는 예기도 많이 들었지만, 대화를 하는 자리가 갖는 의미는 결코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은진 기자

11.3 X 21.0 cm

한일 재계 300명 “기업교류는 계속”

서울서 51회 한일경제인회의
양국 갈등 속 무거운 분위기 진행
유명회 본부장, 일본대사도 참석

“한국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하는 데 대단히 마음이 아팠다. 양국 간 정치외교의 복구가 필요하다.”(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한일 간 갈등과 관계 경색이 너무 안타깝다. 기업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이념이 아닌 현실을 보고 있다. 조속히 양국 관계가 복원되길 바란다”(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24일 서울에서 한국과 일본의 재계 인사 300여 명이 다소 어두운 표정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한일경제협회와 일한경제협회는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를 열었다. 양국 정부 간 정치·외교 갈등이 교역으로 확대되는 데 경제인이 일체화 우려를 표하면서 행사는 다소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재계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온 일본 기업인은 ‘정치·외교와 별개로 기업 간 교류는 계속돼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전했다.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양국은 숙명적 이웃으로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경쟁과 협력을 통해 공존공영해야 한다”며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에 소통과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손경식 경총 회장(CJ 회장)도 “한일 간 무역분쟁은 기업 간 오랜 신뢰 관계를 훼손하고 국제공급망에 예측 불가능성을 초래해 양국 기업에 불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경제적 호혜 관계뿐만 아니라 안보 협력의 끈을 튼튼히 유지할



24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과 사사키 미키오(佐佐木幹夫)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특별고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유명회 통상교섭본부장, 김윤 회장, 사사키 미키오 회장,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 [연합뉴스]

때 서로의 반영과 인정이 담보될 수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측 기업인도 현재 상황을 “출구가 안 보이는”, “폭넓은 피해”, “(기업에) 절실한 문제” 등으로 표현하며 민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한경제협회 회장인 사사키 미키오 미쓰비시상사 특별고문은 “한일 양국의 정치·외교 관계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자치단체·문화·스포츠 간 교류도 한일은 긴장의 연속”이라고 진단했다. 미키오 회장은 “불매운동은 일본 기업뿐 아니라 한국 기업, 소비자, 한국에서 일본계 기업에 일하는 근로자 등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경제와 정치·외교는 자동차의 두 바퀴라는 점에서 정치·외교 관계의 복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낀다”고 말했다. 미키오 회장은 아세안 국가 등 제3국에 한일 기업이 공동 투자를 하고 청소년 교류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경제인은 50년 동안 구축한 관계를 결코 무너뜨리는 일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엔 한·일 정부를 대표

해 유명회 통상교섭본부장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도 참석했다. 유명회 본부장은 “한일관계가 어렵더라도 양국 교류와 협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야스마사 대사는 “최근 불매운동이 일반기업 경제활동 그림자 드리우는 상황이어서 크게 우려한다”며 “이번 회의가 양국 협력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1969년부터 매년 열렸다. 당초 지난 5월 국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번 행사는 일한경제협회의 요청으로 연기됐다가 지난 7월말에서야 일정을 다시 잡았다. 한국 재계에선 류진 풍산그룹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취령 세아제강 부회장, 조용병 신한금융투자 회장, 우기홍 대한항공 부사장, 정택 포스코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일본측에선 도요타자동차·아소시멘트·스미모토(상사·화학)·오오카기정공·호텔우라 등에서 참석했다.

박수현·임성민 기자

park.suryon@joongang.co.kr

16.9 x 23.3 cm

한일 재계 “경제협력 계속 돼야”

서울서 한일경제인회의 열려
日대사 “한국 불매운동 우려
징용배상 판결에 경색” 찬물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로 촉발된 한일 ‘경제 전쟁’ 속에서 양국 주요 기업인들이 만나 ‘두 나라의 경제협력은 계속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두 나라의 재계 인사들이 만나 정부에 관계회복을 요구한 건 지난 7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 이후 처음이다.

2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급변하는 세계경제 속의 한일협력’을 주제로 열린 ‘제 51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한 한국과 일본 기업인들은 한일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개막사에서 “한일 간 경제는 부품과 소재, 장비 제품들이 긴밀히 연결돼 있다”며 “선의로 경쟁하고 최대한 효율을 내기 위해 공존·공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한일 간 갈등 심화는 상호 손실을 가져다줄 뿐”이라며 “다른 나라에만 이익을 주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사키 미키오(佐佐木幹夫) 일한경제협력회장 역시 “한일 관계에서 경제와 정치·외교는 자동차의 두 바퀴와 같다”며 “자동차가 잘 굴러가려면 양국 간 정치·외교 관계의 복

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국의 호혜적인 경제관계의 유지·발전 방안으로 △한일 양국의 제3국 합업 △인재·문화교류 △차세대 네트워크·지역교류 활성화 △올림픽 성공을 위한 협력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양국 정부 관계자의 생각은 여전히 차이가 컸다. 축사를 맡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양국 간 경제적 교류와 협력이 제한되고 흔들리는 현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국과 일본 간 적극적인 만남과 대화를 통해 양국이 직면한 과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한국의 불매운동이 일본 기업의 경제활동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는 것에 우려한다”며 일제강점기 강제 노역 근로자 배상과 관련한 한국 대법원 판결이 양국 경제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일 관계 경색의 책임이 한국에 있다고 강조하며 우여곡절 끝에 열린 회의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한일경제인회의는 1969년 첫 회의 이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매년 열린 민간합동회의다. 올해는 당초 지난 5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양국 관계 악화로 일정이 미뤄지면서 50년 만에 무산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다. 이날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회의엔 양국 재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본태섭 기자
11.8 X 17.2 cm